중3 역사② · Ⅴ-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조선 후기의 정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질문 22개 | **확인 문제** 24개 | **정답과 해설** 포함

1 양난 뒤, 통치·군사 제도

2 조세 제도의 개편

3 붕당 정치의 변화

4 영조·정조의 탕평과 개혁

5 세도 정치

H5-1 · PDF v1.0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이 단원에서 이어 볼 흐름

양난(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은 나라를 운영하고 군대를 유지하는 방식을 손질했습니다. 한편 붕당 사이의 갈등은 예송과 환국을 거치며 심해졌고, 영조와 정조는 이를 누르려 했습니다. 정조가 죽은 뒤에는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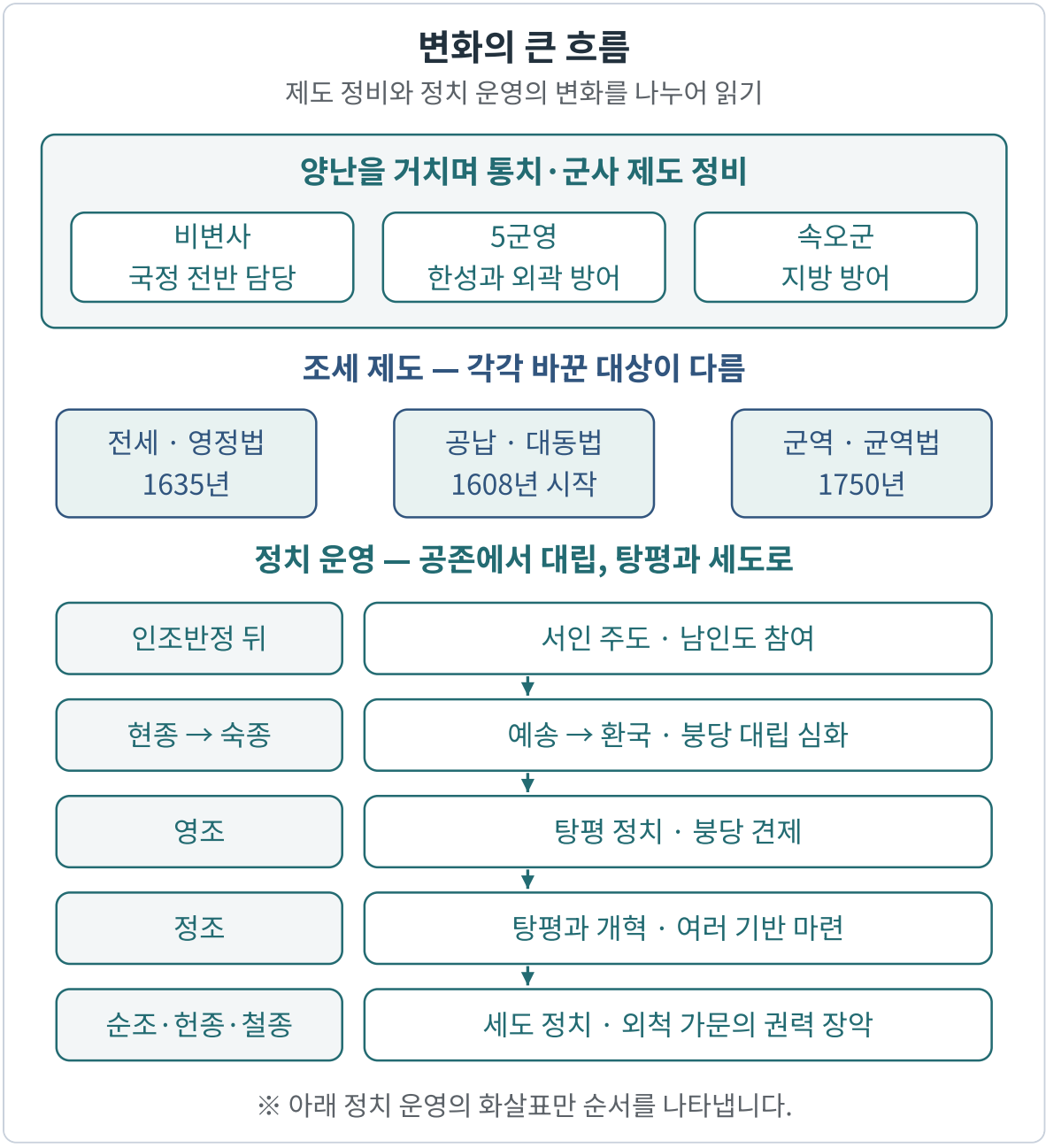


그림 1 **조선 후기 정치 변화의 큰 흐름**

위쪽은 제도의 정비, 아래쪽은 정치 운영의 변화입니다. 조세 제도 세 칸은 서로 다른 세금을 고친 병렬 항목입니다. 아래 정치 운영 부분의 화살표만 변화의 순서를 나타내며, 간격은 실제 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습니다.

왕 순서와 같은 왕 때의 변화

왕	제도	정치 운영
선조	훈련도감 · 속오군 (임진왜란 중)	사림 동인·서인으로 나뉨
광해군	대동법 시작 (경기도)	북인 주도
인조	영정법 어영청·총융청·수어청	인조반정 서인 주도·남인 참여
효종	대동법 확대 (충청·전라)	—
현종	—	예송 (1차·2차)
숙종	금위영 / 5군영 완성 대동법 확대(경상·황해)	환국 / 서인 분화 노론·소론
영조	균역법 / 『속대전』	탕평 탕평비 건립
정조	장용영·수원 화성 『대전통편』	탕평 / 규장각
순조 헌종·철종	—	세도 정치

이 단원에 나오는 왕만 실었습니다.
칸의 높이는 재위 기간과 관계없습니다.
—: 이 표에 정리한 내용 없음

그림 2 **왕 순서와 같은 왕 때의 변화**

이 단원에 나오는 왕만 실었습니다. 칸의 높이는 재위 기간과 관계없습니다. 왕 사이의 화살표는 여기에 제시한 왕들의 순서이며, 생략된 왕이 있습니다. '—'는 이 표에 정리한 내용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인조반정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표 왕과 제도·정치 운영을 함께 보기

왕	제도(통치·군사·조세)	정치 운영
선조	훈련도감·속오군(임진왜란 중)	사림이 동인·서인으로 나뉨
광해군	대동법 시작(경기도)	북인 주도
인조	영정법 / 어영청·총융청·수어청	인조반정 / 서인 주도·남인 참여
효종	대동법 확대(충청·전라)	—
현종	—	예송(1차·2차)
숙종	금위영 설치로 5군영 완성 / 대동법 확대(경상·황해)	환국 /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나뉨
영조	균역법 / 『속대전』	탕평 / 탕평비 건립
정조	장용영·수원 화성 / 『대전통편』	탕평 / 규장각
순조·헌종·철종	—	세도 정치

표 먼저 잡을 다섯 갈래

읽을 부분	중심 질문	먼저 붙잡을 말
1. 통치·군사 제도	전쟁 뒤 어느 기구와 군대가 중요해졌을까?	비변사 · 훈련도감 · 속오군
2. 조세 제도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냈을까?	전세—영정법 / 공납—대동법 / 군역—균역법
3. 붕당 정치	공존하던 붕당이 왜 심하게 대립했을까?	예송 · 환국
4. 영조·정조	왕은 붕당 갈등을 어떻게 줄이려 했을까?	탕평 · 규장각 · 장용영 · 수원 화성
5. 세도 정치	왜 몇몇 가문이 권력을 차지했을까?	외척 · 관직 매매 · 암행어사

1 양난 뒤, 나라와 군대를 어떻게 정비했을까?

Q01 비변사는 군사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왜 나라의 큰일을 모두 맡게 되었나요?

한 줄 답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뿐 아니라 외교·재정·인사까지 함께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비변사	처음에는 국방 문제를 의논하려고 설치한 기구.
상설 기구	필요한 때만 잠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기구.
국정	나라를 운영하는 일.
재정	나라의 수입과 지출.
인사	관리를 뽑고 자리를 정하는 일.

표 비변사가 커진 세 단계

단계	하는 일과 변화
중종 때	왜구와 여진의 침입 등에 대비하는 임시 기구
명종 때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며 상설 기구가 됨
양난을 거치며	고위 관리들의 참여가 늘고, 군사·외교·재정·인사를 다루는 최고 정치 기구로 성장

설명

전쟁에서는 군사를 어디로 보낼지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량과 무기를 마련할 돈, 주변 나라와의 관계, 군대를 지휘할 사람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얽힌 문제를 비변사에서 처리하면서 담당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쟁 중 커진 비변사는 전후에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설치 당시의 목적**과 **조선 후기의 실제 역할**을 구별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전쟁이 끝나자 비변사는 국방 문제만 맡았다	**전쟁 뒤에도 국정의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

시험 포인트

‘변방의 방어 → 국정 전반’은 비변사의 **기능 확대**를 보여 주는 단서입니다.

Q02 비변사가 강해졌다는 말은 왕도 강해졌다는 뜻인가요?

한 줄 답

비변사를 장악한 고위 관리들의 힘이 커지면서 의정부·6조의 기능과 왕권은 약해졌습니다.

낯선 말

의정부	영의정 등 높은 관리들이 나라의 큰일을 논의하던 중앙 기구.
6조	인사·재정·교육과 의례·군사·재판·공사 등의 실무를 나누어 맡은 여섯 관청.
왕권	왕이 정치를 이끌고 결정하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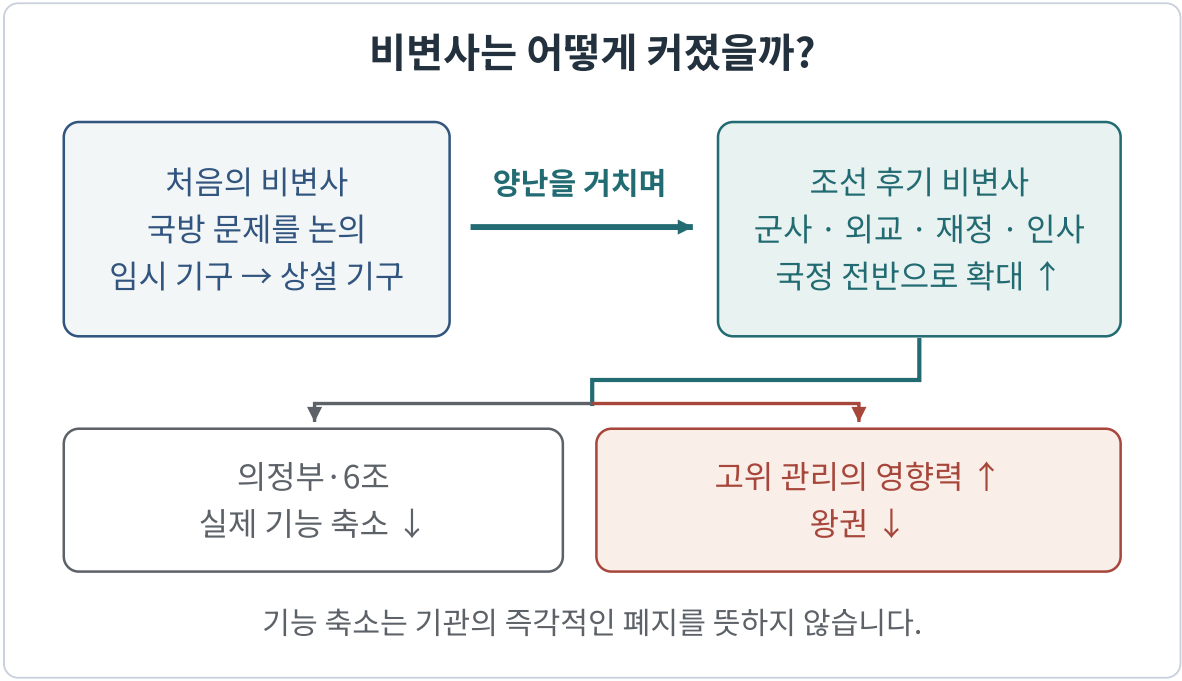


그림 3 비변사의 기능 확대와 기존 기구의 변화

‘기능 축소’는 기관이 곧바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굵은 테두리와 ‘확대’라는 말은 비변사에 중요한 결정이 집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표 **함께 바뀐 힘의 관계**

커진 것	약해진 것
비변사의 담당 범위 ↑	의정부·6조의 실제 기능 ↓
비변사를 차지한 고위 관리들의 영향력 ↑	왕권 ↓

설명

정치 기구가 커졌다고 해서 왕의 힘도 함께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구를 누가 움직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비변사에는 고위 관리들이 모였고, 권력을 잡은 정치 세력은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뒤에서 볼 영조·정조는 붕당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비변사의 확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제도의 변화이고, 영조·정조의 왕권 강화는 그 왕들이 추진한 정치 활동입니다. 두 흐름을 따로 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정치 기구가 커지면 왕권도 언제나 강해진다	**비변사는 고위 관리들이 움직였으므로, 비변사가 커지면서 왕권은 약해졌다**
조선 후기의 모든 왕은 언제나 힘이 약했다	**영조·정조는 붕당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시험 포인트

‘비변사 강화 → 의정부·6조 강화’처럼 둘을 같은 방향으로 묶은 선지는 고쳐 읽습니다.

Q03 훈련도감의 ‘삼수병’은 군인이 세 명이라는 뜻인가요?

한 줄 답

사용하는 무기와 전투 방식이 다른 세 종류의 병사를 뜻합니다.

낯선 말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 설치한 중앙 군영.

군영 군대를 편성하고 지휘하는 조직.

급료 일을 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나 곡식.

표 **무기로 구별하는 삼수병**

병사	주요 무기	기억할 연결
포수	조총	포수—총
사수	활과 화살	사수—활
살수	창과 칼	살수—창·칼



그림 4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군인들의 모습**

조선 후기 군사 훈련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 구성한 상상도입니다. 실제 부대의 인원수·배치·복식을 그대로 재현한 자료는 아닙니다. 맨 왼쪽 조총을 든 병사가 포수, 가운데 활을 쏘는 병사가 사수, 오른쪽 창을 든 병사가 살수입니다. 조총 든 병사 옆의 사람은 훈련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설명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 기존 방어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총을 쏘는 병사, 활을 쏘는 병사, 가까이에서 창과 칼로 싸우는 병사를 함께 편성했습니다. 이들을 합쳐 삼수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훈련도감의 병사들은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생업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모이는 군대와 달리, 군사 활동과 훈련을 전문적으로 맡았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시험 포인트

‘임진왜란 중 설치 + 삼수병 + 급료’라는 단서를 묶으면 훈련도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Q04 5군영과 속오군은 모두 군대인데,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5군영은 한성과 그 주변을 지키는 중앙 군대이고, 속오군은 지방을 방어하는 군대입니다.

낯선 말

중앙군	수도를 중심으로 편성한 군대.
지방군	각 지방의 방어를 맡은 군대.
유사시	전쟁 등 큰일이 일어났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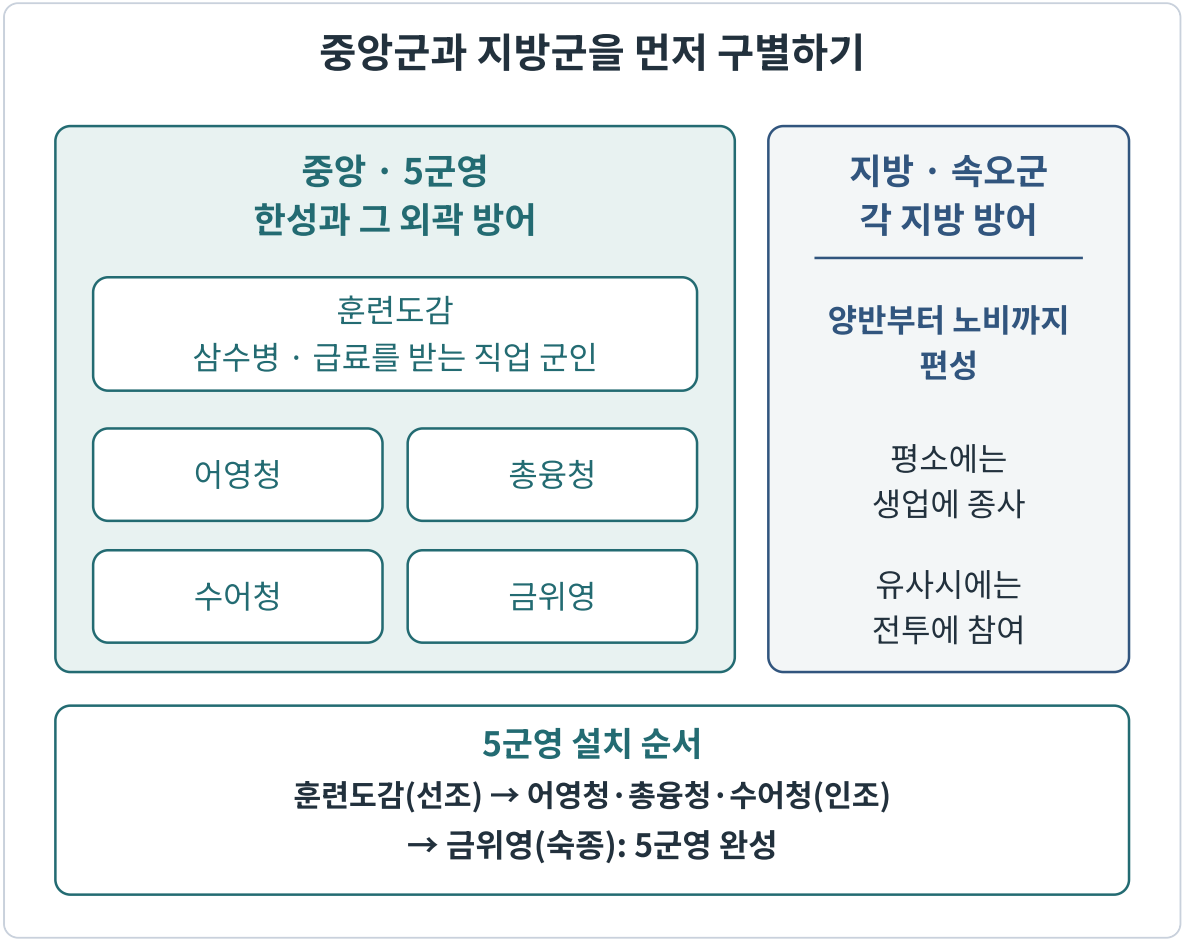


그림 5 **중앙의 5군영과 지방의 속오군**

훈련도감은 5군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오군은 5군영의 여섯 번째 군영이 아닙니다.

표 방어 지역과 운영 방식

구분	5군영	속오군
방어 범위	한성과 그 외곽	지방
조직	훈련도감·어영청·총융청·수어청·금위영	각 지방에 편성
완성 시기	숙종 때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5군영 체제 완성	—
핵심 특징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여러 군영을 설치하여 체제를 갖춤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 평소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 전투 참여

설명

훈련도감이 설치된 뒤 여러 군영이 더해져 중앙 방어 체제를 이루었습니다. 숙종 때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습니다.

속오군은 지방에서 여러 신분의 사람을 편성한 군대입니다. **군대의 편성 범위**가 넓었다는 말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훈련도감과 5군영은 서로 별개의 군대다	**훈련도감은 차례로 마련된 5군영 가운데 하나다**
양반과 노비가 함께 편성되었으니 신분 구별이 사라졌다	**군대의 편성 범위가 넓었다는 뜻이다**
속오군도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다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유사시에 전투에 참여했다**

시험 포인트

먼저 ‘중앙/지방’을 가르고, 다음으로 ‘전문 군인/평소 생업’을 확인합니다.

2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거두었을까?

Q05 영정법·대동법·균역법은 모두 세금을 줄인 법인가요?

한 줄 답

부담을 덜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같지만, 고친 세금의 종류와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낯선 말

전세	토지에 부과한 세금.
공납	집집마다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게 한 부담.
군역	군대에서 복무하는 의무. 군대에 가는 대신 군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군포	군역 대신 내는 옷감.

표 이름보다 먼저, 바꾼 대상을 찾기

비교 기준	전세	공납	군역
법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왕	인조	광해군 때 시작 / 숙종 때까지 확대	영조
고치기 전	풍흉에 따라 해마다 달라짐	집집마다 토산물	군포 1년에 2필
고친 뒤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	토지 결수에 따라 쌀·옷감·동전 등 / 대표 기준: 1결당 쌀 12두	군포 1년에 1필
결과·보완	전세 부담 감소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공납 부담 감소 / 지주 부담 증가 / 공인 등장	결작·어장세·소금세·선박세 등으로 부족분 보충

설명

양난 이후에는 농토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줄어 나라의 수입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이전 방식대로 무리하게 거두면 농민이 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마련하면서 부담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려 했습니다.

영정법은 **전세액을 일정하게**, 대동법은 **공납의 기준과 납부 물품을 변경**, 균역법은 **군포를 절반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뀐 대상을 먼저 말한 뒤 법의 이름을 붙여 보세요.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세 법은 이름만 다르고 고친 내용이 같다	**전세·공납·군역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구별한다**

시험 포인트

‘전—영 / 공—대 / 군—균’을 연결한 뒤, 자료의 숫자·기준·물품을 대조합니다.

Q06 영정법의 ‘토지 1결당 쌀 4두’는 누구나 쌀 네 말을 낸다는 뜻인가요?

한 줄 답

토지의 결수에 따라 전세를 계산한다는 뜻이며, 사람마다 똑같이 네 말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낯선 말

- **결** — 토지의 생산력을 고려해 정한 토지 단위. 오늘날의 일정한 면적 단위와 그대로 같지 않습니다.
- **두** —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 우리말로 ‘말’이라고 합니다.
- **풍흉** — 농사가 잘된 정도와 잘되지 못한 정도.

표 영정법에서 달라진 기준

읽을 표현	뜻
고치기 전	풍흉에 따라 1결당 최고 20두부터 최저 4두까지 달리 거두는 기준
고친 뒤	낮은 수준인 1결당 4두로 고정하여 전세 부담을 덜어 줌
풍흉에 관계없이	해마다 농사가 잘되었는지에 따라 전세액을 달리하지 않음
토지 1결당	사람 수나 집 수가 아니라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계산
쌀 4두	영정법에서 정한 1결당 전세액

설명

이전 제도는 풍흉에 따라 토지 1결당 최고 20두부터 최저 4두까지 달리 거두도록 정했습니다. 인조 때 실시한 영정법은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전세를 쌀 4두로 정했습니다. 전세를 낮은 수준으로 고정하여 전세

부담을 덜어 준 것입니다. ‘일정하게 정했다’는 말은 농사 결과에 따라 매번 전세액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전세만 계산하면 **1결 → 쌀 4두, 2결 → 쌀 8두**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모든 세금이 쌀 4두로 통일되었다	**4두는 토지 1결에 부과한 전세만의 기준이다**

시험 포인트

‘풍흉 무관·1결·4두’ 세 단서를 함께 찾습니다. 대동법도 토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고친 대상은 공납입니다.

Q07 대동법은 토산물 대신 쌀만 내게 한 법인가요?

한 줄 답

납부 물품뿐 아니라, 공납을 부과하는 기준을 집에서 토지 결수로 바꾼 법입니다.

낯선 말

토산물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가호	집 또는 가구.
방납	공물을 대신 내 주고 대가를 받는 일.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지주	땅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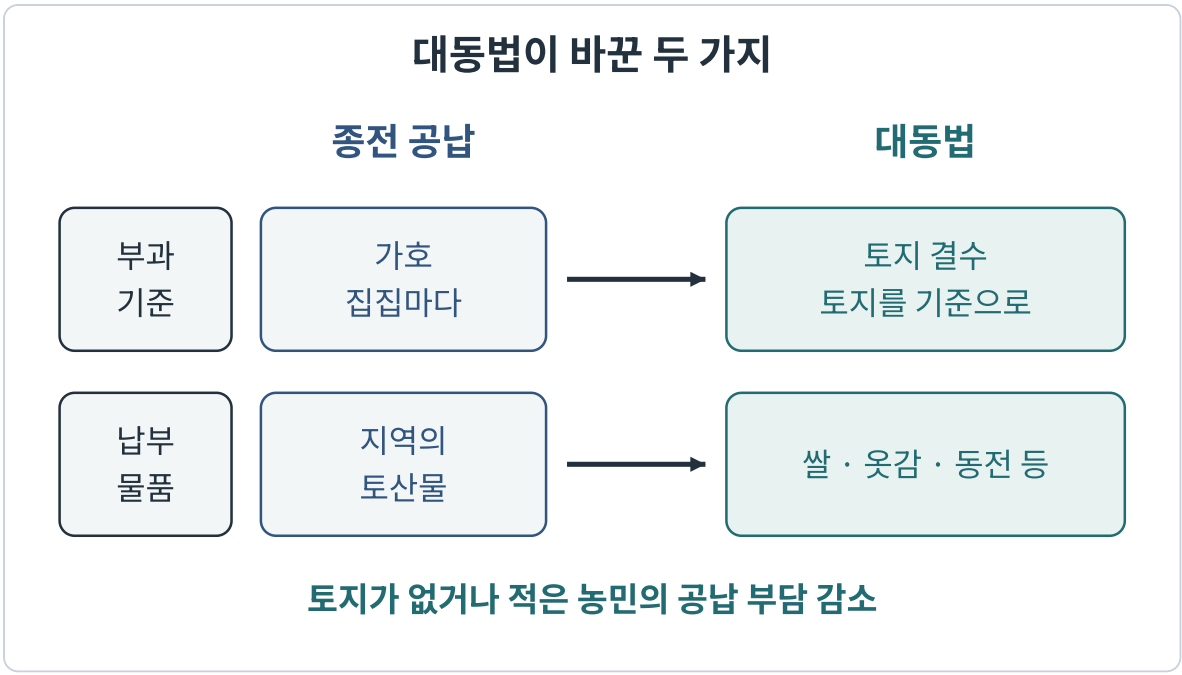


그림 6 **대동법이 바꾼 두 가지**

왼쪽과 오른쪽에서 '기준'과 '납부 물품'을 각각 비교합니다. 대동법의 변화는 '토산물 → 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표 **전후를 두 줄로 비교하기**

비교 기준	종전 공납	대동법
부과 기준	가호	토지 결수
납부 물품	지역의 토산물	쌀·옷감·동전 등

설명

공납을 부담하는 농민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첫째,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물품을 내야 할 때는 다른 곳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둘째, 대신 공물을 내 주는 사람이 비싼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와 같은 문제를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대동법은 토산물을 일일이 마련하는 대신 쌀·옷감·동전 등으로 내게 하여 이러한 폐단을 줄이려 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토지 결수에 따라 부담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공납 부담은 줄어들고, 땅을 많이 가진 지주의 부담은 커질 수 있었습니다.

자료에 대동법의 대표적인 기준인 '토지 1결당 쌀 12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12두—공납의 개편', '4두—전세의 영정법'을 구별합니다. 대동법에서는 지역 사정에 따라 옷감이나 동전 등으로도 납부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대동법으로 농민의 모든 세금이 없어졌다	**공납의 부과 기준과 납부 물품을 바꾼 것이다**

시험 포인트

‘가호 → 토지 결수’가 보이면 대동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토지’라는 낱말만 보고 영정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Q08 대동법이 도움이 되었다면, 왜 널리 시행하는 데 오래 걸렸나요?

한 줄 답

부담이 늘어나는 지주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낯선 말

확대 시행	처음 시행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힘.
공인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공급하던 상인.

표 대동법의 확대 — 차례를 보는 표

지역	시행 시기
경기도	1608년, 광해군 때
강원도	1623년, 인조 때
충청도	1651년, 효종 때
전라도	1658년, 효종 때
경상도	1678년, 숙종 때
황해도	1708년, 숙종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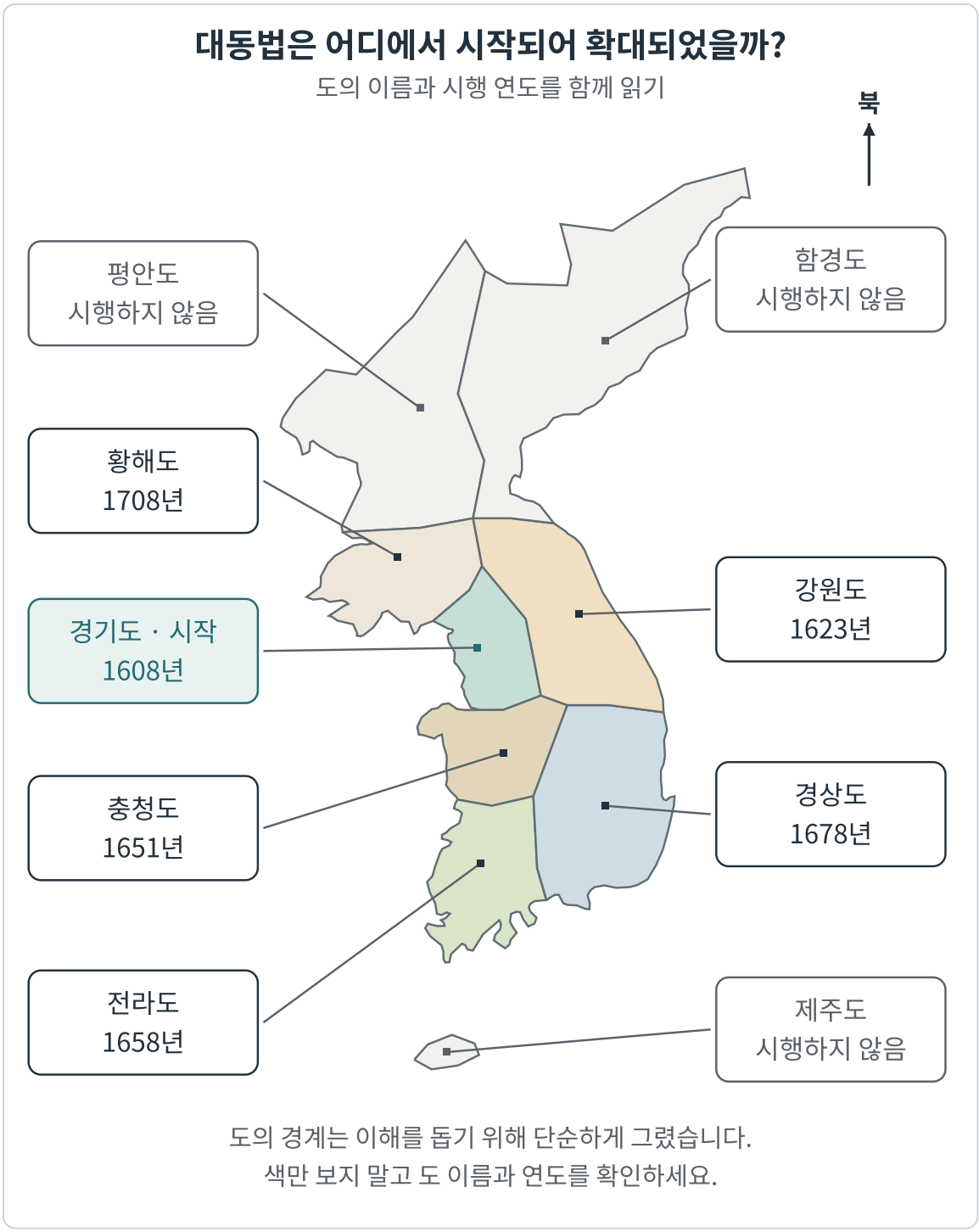


그림 7 **대동법 시행 지역의 확대**

도의 경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시행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각 도의 이름과 시행 연도를 함께 읽습니다. 평안도·함경도와 제주도는 시행하지 않은 지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설명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습니다. 부담을 덜게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부담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많은 지주 등은 토지 결수에 따라 공납을 부담하는 변화에 반대했습니다. 표의 연도를 모두 외우기보다 **경기도에서 시작—점차 확대—지주 등의 반대**를 먼저 연결합니다.

교과서나 문제에서는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러 주요 지역으로 시행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평안도·함경도 등에는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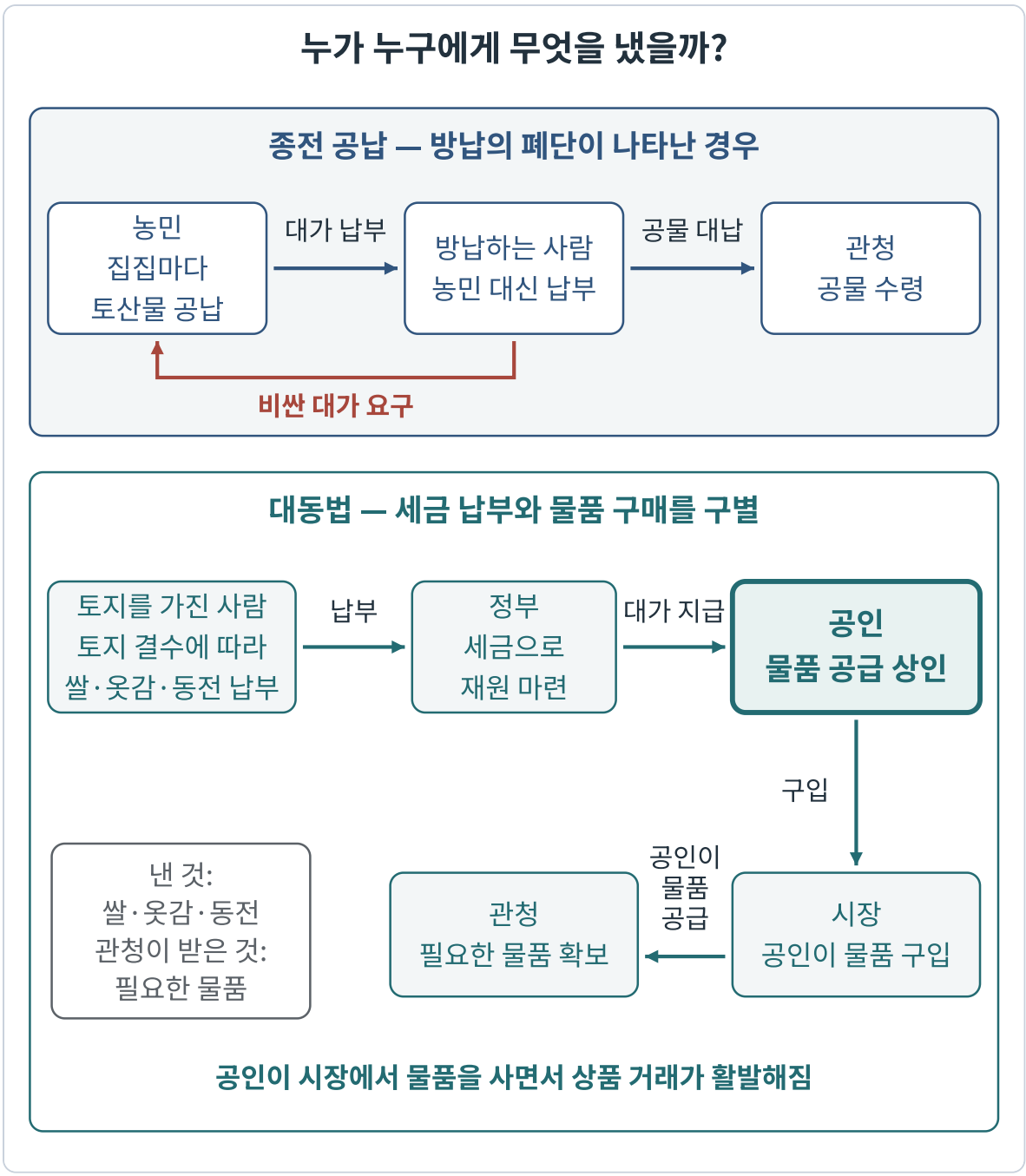


그림 8 **공납의 폐단과 대동법 이후의 물품 공급**

위쪽은 방납의 폐단이 생긴 경우를 나타냅니다. 방납하는 사람은 농민 대신 관청에 공물을 내고 농민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세금의 납부, 공인에 대한 대가 지급, 시장의 물품 구매를 구별합니다.

또 농민이 토산물을 직접 내지 않게 되어도 관청에는 여전히 여러 물품이 필요했습니다. 공인은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필요한 물품을 구해 관청에 공급했습니다. 공인이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전국 확대는 모든 지역에 한꺼번에 시행했다는 뜻이다	**여러 지역으로 점차 확대했으며, 시행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시험 포인트

시행 지역이 차례로 늘어나는 지도나 표에서는 '확대가 오래 걸린 이유'를, 물품의 공급 과정에서는 '공인'을 찾습니다.

Q09 균역법으로 군포를 절반만 받으면 나라의 돈은 부족해지지 않았나요?

한 줄 답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려고 토지에 결작을 부과하고 어장·소금·선박 등에 대한 세금도 활용했습니다.

낯선 말

필	옷감의 양을 세는 단위.
결작	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려고 토지에 부과한 부담.
어장세·소금세·선박세	어장, 소금 생산, 배 등에 부과한 세금.

표 감면과 보충을 함께 보기

단계	내용
종전	군포를 1년에 2필 납부
영조의 균역법	군포 2필 → 1필(1필 감소)
부족분 보충	결작 + 어장세·소금세·선박세 등 → 부족한 수입 보충

설명

균역법은 영조가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입니다.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으므로 군포를 내는 사람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른 수입으로 부족분을 메우려 했습니다. **바꾼 중심 대상은 군포**, 결작 등은 **그 결과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결작이 토지에 부과되므로 균역법도 영정법과 같다	**균역법의 중심은 군포 감면이고, 결작은 부족한 재정의 보충책이다**

시험 포인트

‘2필 → 1필—균역법—영조’를 한 묶음으로 기억합니다. ‘군역 자체를 모두 없앴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2부 한눈에 정리

표 조세 세 법 종합 비교

비교 기준	전세	공납	군역
법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왕	인조	광해군 때 시작 / 숙종 때까지 확대	영조
고치기 전	풍흉에 따라 해마다 달라짐	집집마다 토산물	군포 1년에 2필
고친 뒤	풍흉과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	토지 결수에 따라 쌀·옷감·동전 등 / 대표 기준: 1결당 쌀 12두	군포 1년에 1필
결과·보완	전세 부담 감소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공납 부담 감소 / 지주 부담 증가 / 공인 등장	결작·어장세·소금세·선박세 등으로 부족분 보충

3 붕당은 왜 공존하다가 서로를 몰아내게 되었을까?

Q10 붕당 정치는 처음부터 서로 싸우기만 한 정치였나요?

한 줄 답

처음에는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판·견제하며 정치를 운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낯선 말

인조반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사건.
사림	성리학을 공부한 지방 출신 선비들로, 선조 때 정치를 이끌게 된 세력.
붕당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사림의 정치 집단.
공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형성한 여론. 여기서는 주로 사림·양반 사회의 의견을 뜻합니다.
견제	한쪽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살피고 제어하는 일.

표 붕당 정치의 두 모습

공존과 견제가 작동할 때	대립이 격해졌을 때
상대 붕당의 존재 인정	자기 붕당의 이익을 앞세움
정책을 비판하고 의견을 모음	상대를 몰아내는 데 힘을 쏟음
3사와 서원 등을 통해 공론 형성	비판이 상대 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

설명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조반정 뒤에는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남인도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3사인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은 정치에 대한 비판과 논의에 관여했고, 서원은 사림이 학문을 연구하며 의견을 모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존과 견제는 한 세력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붕당 정치는 처음부터 상대를 모두 제거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며 비판·견제한 시기도 있었다**

시험 포인트

‘처음부터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처럼 시기를 지운 표현을 주의합니다.

Q11 동인·서인·남인·북인·노론·소론은 언제부터 다 있었나요?

한 줄 답

처음부터 여섯 붕당이 나란히 생긴 것이 아니라, 동인과 서인에서 차례로 갈라졌습니다.

낯선 말

분화	하나의 집단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일.
집권	정치의 주도권을 잡는 일.

표 계보와 집권 시기를 분리해 읽기

물음	연결
동인에서 갈라진 붕당은?	남인·북인
서인에서 갈라진 붕당은?	노론·소론
광해군 때 정치를 주도한 붕당은?	북인
인조반정 뒤 정치를 주도한 붕당은?	서인, 남인도 참여
숙종 때 남인 처리 문제로 나뉜 쪽은?	서인 → 노론·소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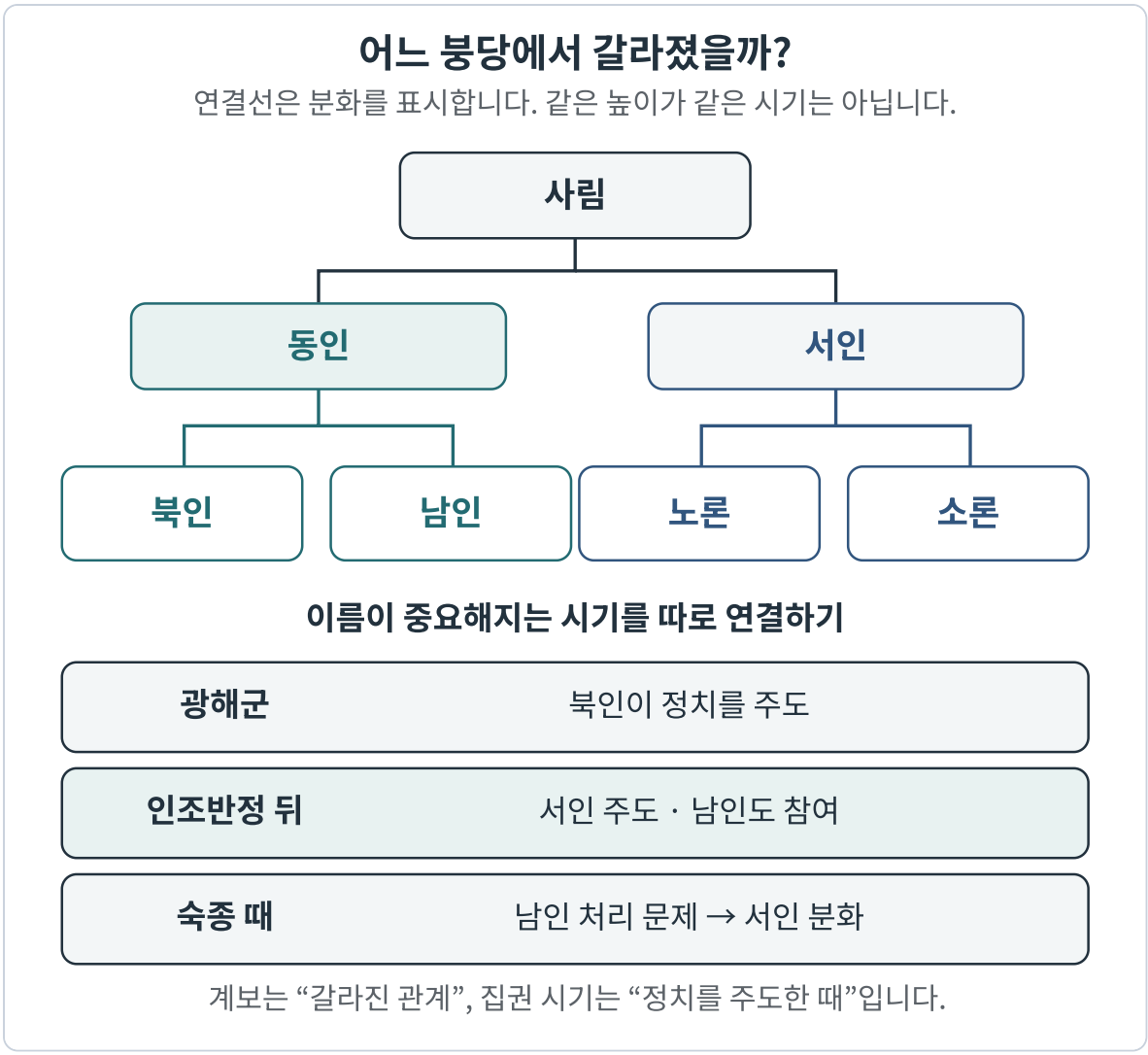


그림 9 **붕당의 갈래와 정치의 흐름**

선은 ‘어느 붕당에서 갈라졌는가’를 나타냅니다. 이름이 같은 높이에 있다고 같은 해에 갈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설명으로 각 붕당이 중요해지는 시기를 확인합니다.

설명

계보는 ‘누구에게서 갈라졌는가’를, 집권의 흐름은 ‘언제 누가 정치를 주도했는가’를 묻습니다. 두 물음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인은 동인에서 갈라졌지만, 인조반정 뒤 서인이 주도하는 정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 노론·소론은 서인에서 갈라졌습니다. 뒤의 환국 과정에서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차이로 서인이 갈라졌다는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예송 때 남인이 노론·소론으로 나뉘었다	**숙종 때 남인 처리 문제를 두고 서인이 노론·소론으로 나뉘었다**

시험 포인트

계보 빈칸은 부모 갈래를 먼저, 집권 시기는 왕과 사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Q12 예송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는 문제인데, 왜 큰 정치 싸움이 되었나요?

한 줄 답

효종을 둘째 아들로 대할지, 왕위를 이었으므로 맏아들과 같이 대할지가 왕실의 지위와 붕당의 정치적 주도권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예송	왕실의 상복 입는 기간 등을 둘러싼 예법 논쟁.
상복	가족 등이 죽었을 때 애도의 뜻으로 입는 옷.
사대부	유교를 공부한 양반 지식인과 관리.
정통성	왕위를 이은 자격이 정당하다는 근거.
계비	왕이 앞 왕비를 잃은 뒤 새로 맞은 왕비.
계모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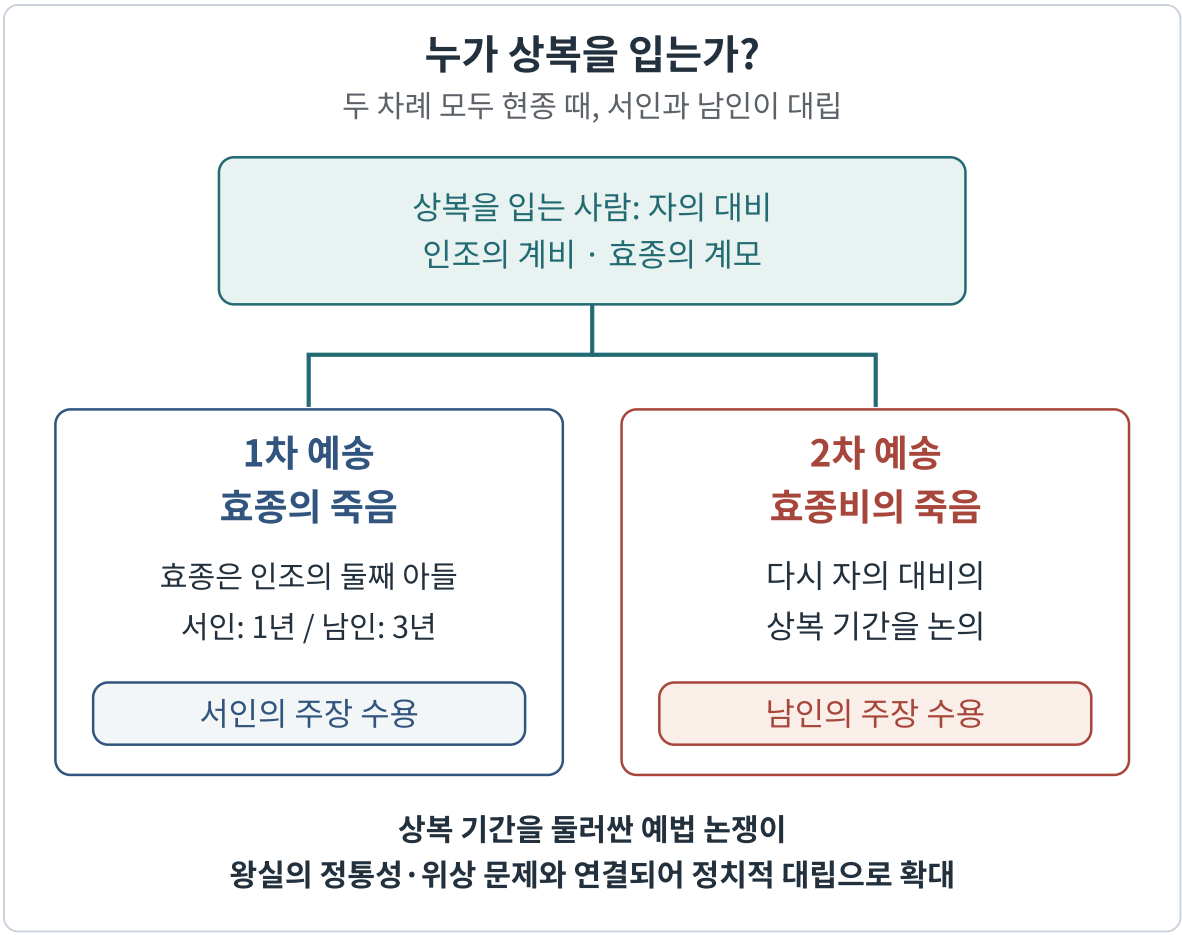


그림 10 **예송에서 누구의 상복을 논의했을까?**

상복을 입는 사람은 자의 대비입니다. 죽은 사람은 1차 때 효종, 2차 때 효종의 왕비입니다. 효종과 효종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다툰 것이 아닙니다.

표 **두 차례 예송 구별하기**

비교 기준	1차 예송	2차 예송
계기	효종의 죽음	효종비의 죽음
당시 왕	현종	현종
상복을 입는 사람	자의 대비	자의 대비
받아들여진 쪽	서인	남인

표 **1차 예송에서 서인과 남인의 입장**

비교 기준	서인	남인
효종을 보는 눈	인조의 둘째 아들	왕위를 이었으므로 맏아들과 같이 대우
예법 적용	왕실도 사대부와 **같은** 예법	왕실은 사대부와 **다른** 예법
자의 대비의 상복 기간	1년	3년

설명

당시 예법에는 어머니가 맏아들의 죽음에는 3년, 둘째 이하 아들의 죽음에는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의 대비는 인조의 계비로, 효종에게는 계모에 해당합니다. 1차 예송에서 서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는 점을 들어 자의 대비가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인은 효종이 왕위를 이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3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성리학에서 예법은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서인은 **왕실도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남인은 **왕실은 사대부와 다른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왕위를 이은 효종을 어떤 지위로 대우할지, 곧 왕실의 정통성을 예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었습니다. 어느 붕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치의 주도권도 달라졌습니다.

두 차례 모두 현종 때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습니다. 1차에는 서인, 2차에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붕당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예송은 상복 기간만 정하는 문제였다	**예법 적용이 왕실의 정통성과 붕당의 정치적 대립에 연결되었다**

시험 포인트

‘현종—자의 대비—서인·남인’을 함께 찾고, 효종의 죽음인지 효종비의 죽음인지 구별합니다.

Q13 환국은 예송처럼 논쟁의 이름인가요?

한 줄 답

환국은 숙종 때 왕이 집권 붕당을 급격하게 바꾸어 정국을 전환한 일입니다.

낯선 말

환국 정치를 주도하는 붕당이 급격하게 교체되는 일.

정국 정치가 움직이는 상황.

보복 상대에게 당한 일을 되갚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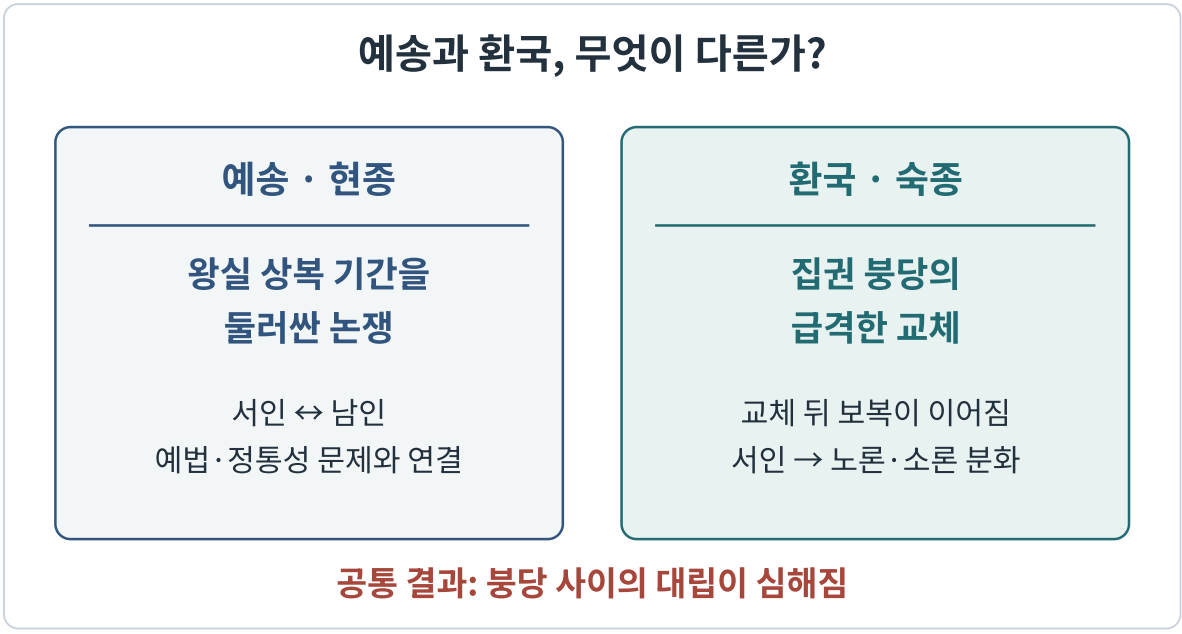


그림 11 예송과 환국을 구별하는 단서

예송은 '무엇을 두고 논쟁했는가', 환국은 '집권 세력이 어떻게 교체되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표 이름을 가르는 기준

구분	예송	환국
왕	현종	숙종
핵심 장면	왕실 상복 기간을 둘러싼 논쟁	집권 붕당의 급격한 교체와 보복
맞선 붕당	서인 ↔ 남인	서인 ↔ 남인
흐름	붕당 간 대립 심화	공존의 원리가 무너지고 대립 격화

설명

숙종은 집권 붕당을 바꾸면서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붕당들이 서로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집권한 쪽이 상대를 몰아내고 보복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환국 과정에서는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숙종도 붕당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탕평책을 제시했지만,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뒤의 영조·정조가 탕평 정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환국은 붕당들이 평화롭게 정권을 나눈 일이다	**집권 붕당의 교체 뒤 상대를 몰아내고 보복하는 일이 이어졌다**

시험 포인트

‘상복 논쟁’과 ‘집권 붕당 교체’라는 동작을 먼저 구별한 뒤 현종·숙종을 연결합니다.

4 영조와 정조는 무엇을 고치려 했을까?

Q14 탕평은 붕당을 모두 없애 버렸다는 뜻인가요?

한 줄 답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여 붕당의 대립을 줄이려는 정치 원칙입니다.

낯선 말

탕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
등용	사람을 뽑아 관직 등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
군자·소인	여기서는 사사로운 편 가르기를 경계하는 사람과 자기편의 이익에 치우친 사람을 대조한 말.
온건파	상대와의 타협을 중시하고 비교적 완만한 방법을 추구한 사람들.

표 탕평의 목적과 방법

목적	방법
붕당 사이의 지나친 대립 완화	여러 붕당에서 인재 등용
왕이 정치를 이끄는 힘 강화	붕당의 인사 영향력과 정치 기반 견제



그림 12 **탕평의 뜻을 알리는 비석**

탕평비를 이해하기 위한 상상도입니다. 실제 비석의 모양과 비문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탕평비 비문의 뜻풀이

널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편만 챙기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다. 자기편끼리만 뭉치고 널리 어울리지 않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다.

— 영조가 세운 탕평비의 뜻을 쉽게 풀어 씀

설명

영조는 탕평의 뜻을 알리려고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탕평의 출발점은 특정 붕당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온건한 인물을 중심으로 등용했고, 정조는 남인 등으로 인재 등용의 폭을 넓혔습니다. 탕평은 왕이 인재를 고르고 붕당을 견제하여 갈등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탕평은 각 붕당에서 같은 수의 관리를 뽑는 제도다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는 인재 등용을 지향했다**
탕평으로 붕당과 정치적 갈등이 완전히 사라졌다	**왕의 힘으로 붕당의 지나친 대립을 누르려 했다**

시험 포인트

‘여러 붕당의 인재 등용—붕당 갈등 완화—왕권 강화’를 연결합니다. 영조와 정조의 공통점입니다.

Q15 영조는 왜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했나요?

한 줄 답

붕당의 정치적 기반과 관리 임명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서원	유학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연구하며 교육하던 곳. 사림이 의견을 모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기반	정치 활동과 권력 행사를 뒷받침하는 사람·조직·제도.
이조	관리의 인사를 담당한 중앙 관청.
전랑	정랑·좌랑이라는 관직을 묶어 부르는 말. 이조 전랑은 관리 추천 등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표 정책을 목적과 연결하기

영조의 조치	붕당 정치와의 관계
서원 정리	붕당의 기반을 줄임
이조 전랑의 인사 권한 약화	특정 붕당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임
노론·소론의 온건파 등용	붕당의 대립을 누르고 왕권 강화

설명

서원은 교육 기관이면서 사림이 모여 의견을 형성하는 곳이었습니다. 붕당의 대립이 심해지면 자기 붕당의 입장을 확산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서원 정리는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정책과 연결됩니다.

관리의 임명에 영향을 주는 자리도 중요했습니다. 한 붕당이 자기편을 계속 추천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한 조치는 이러한 인사 영향력을 줄이고 왕이 정치를 이끄는 힘을 키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서원 정리는 유교 교육 자체를 없애려는 조치다	**붕당의 정치적 기반을 줄이려는 조치와 연결된다**

시험 포인트

‘서원 정리 + 이조 전랑 권한 약화’는 영조의 탕평 정책을 알아보는 강한 단서입니다.

Q16 영조의 균역법·신문고·청계천 정비는 탕평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한 줄 답

탕평으로 왕권과 정치 운영을 안정시키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백성의 생활과 법 제도를 고치려 했습니다.

낯선 말

민생	백성이 생활을 이어 가는 일.
신문고	백성이 억울한 일을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한 북.
법전	나라의 법을 모아 정리한 책.

표 영조의 정책 묶음

분야	정책	연결할 목적
정치	탕평비 건립, 서원 정리, 이조 전랑 권한 약화	탕평 의지 표명·붕당 견제
군역	균역법	군포 부담 경감
형벌·호소	가혹한 형벌 금지, 신문고 부활	억울함과 고통 완화
생활 환경	청계천 정비	범람 피해를 줄이려 함
법	『속대전』 편찬	변화한 법과 제도 정비

설명

탕평은 인재 등용과 붕당의 관계를 다루는 정치 운영 원칙이고, 균역법 등은 백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입니다. 두 분야는 영조가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어집니다.

청계천을 정비한 것은 물이 넘쳐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책을 이름만 외우기보다 ‘어떤 불편이나 부담을 고치려 했는가’와 연결하면 낯선 표현으로 바뀌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탕평과 민생 정책은 같은 조치의 다른 이름이다	**탕평은 정치 운영 원칙, 균역법 등은 생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다**
영조가 신문고를 처음 만들었다	**영조는 신문고를 부활시켰다**

시험 포인트

‘균역법·신문고 부활·속대전’은 영조 묶음입니다. 정조의 ‘장용영·대전통편’과 교차해서 확인합니다.

Q17 정조의 규장각은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었나요?

한 줄 답

왕실 도서관 기능을 바탕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왕에게 조언하며 인재를 기르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낯선 말

규장각	정조가 설치하여 왕실 도서를 관리하고 정책 연구·자문과 인재 양성에 활용한 기관.
자문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받는 일.
서얼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자손. 관직 진출 등에 차별을 받았습니다.
검서관	규장각에서 책을 정리·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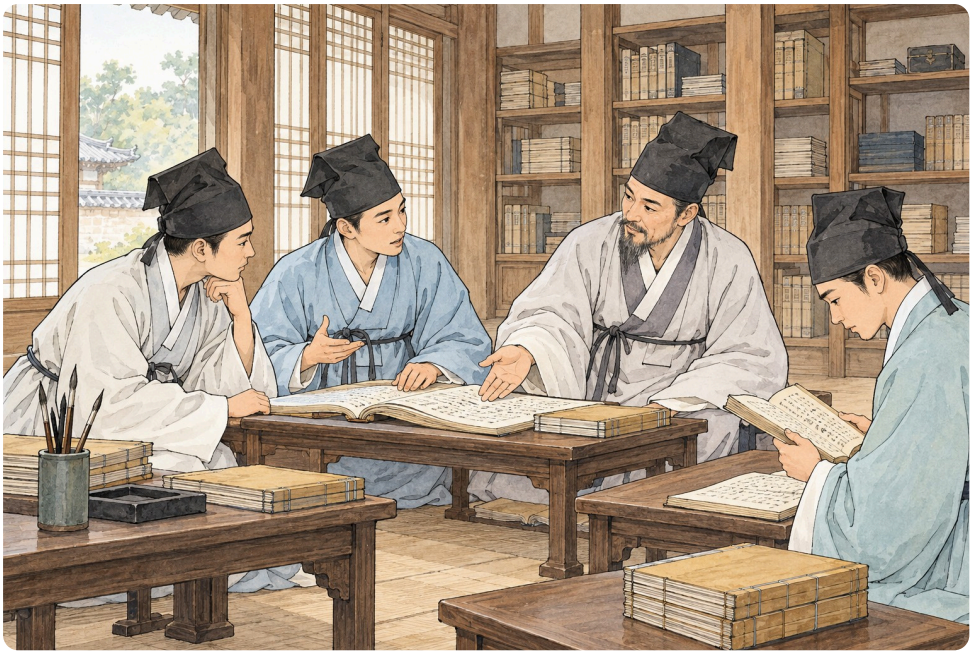


그림 13 **책을 읽고 정책을 토론하는 학자들**

규장각의 학문 연구와 인재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상상도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실제 토론 장면을 재현한 그림은 아닙니다. 책 보관뿐 아니라 읽고 토론하는 활동에 주목합니다.

표 **규장각의 역할이 넓어지는 방향**

기본 기능	함께 맡은 역할
왕실 도서 수집·보관·정리	정책 연구와 왕에 대한 자문
학문 활동의 기반 마련	젊고 능력 있는 관리 교육
책 관련 업무	서얼 출신 학자를 검서관으로 등용

설명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왕의 정책을 뒷받침할 학자와 관리를 길러 냈습니다. 정치 개혁을 도울 인재와 정책을 마련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덕무·박제가·유득공과 같은 서얼 출신 학자들을 검서관으로 등용했습니다. 신분 때문에 능력을 펼치기 어려웠던 사람에게 활동 기회를 넓힌 것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규장각은 책만 보관했다	**정책 연구·자문과 인재 양성도 맡았다**
서얼 등용으로 모든 신분 차별이 폐지되었다	**차별받던 인재의 활동 기회를 넓혔다**

시험 포인트

‘정조 + 왕실 도서 + 정책 자문 + 젊은 관리 교육’의 조합이면 규장각입니다. 학문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현전이나 성균관을 고르지 않습니다.

Q18 정조는 규장각도 두었는데, 왜 장용영과 수원 화성까지 마련했나요?

한 줄 답

개혁을 추진하려면 인재와 정책뿐 아니라 왕을 뒷받침할 군사력과 거점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말

장용영	정조가 설치한 왕의 친위 부대.
친위 부대	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대.
거점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
행궁	왕이 궁궐 밖으로 나왔을 때 머무르는 궁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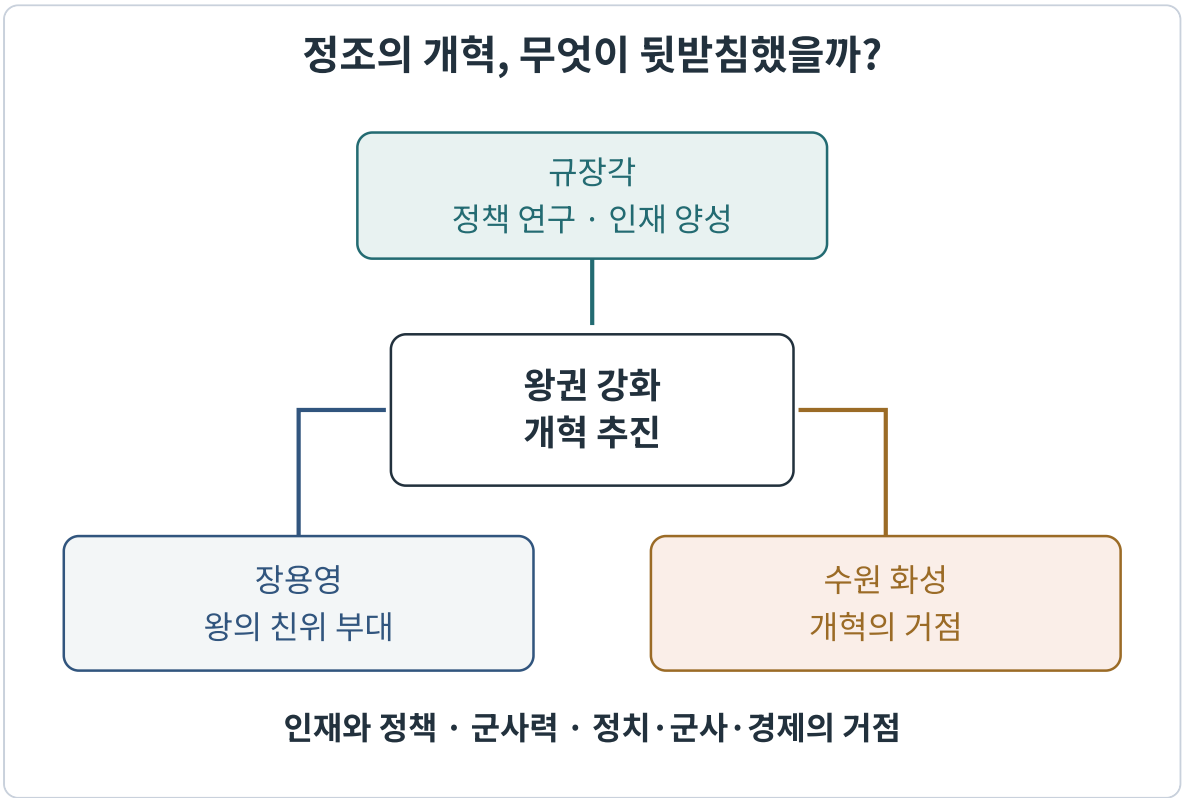


그림 14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한 기반**

규장각·장용영·수원 화성은 모두 정조와 연결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그림의 연결선은 같은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개혁을 함께 뒷받침했다는 뜻입니다.



그림 15 **성곽 안에 자리한 수원의 도시**

수원 화성을 도시로 이해하기 위한 상상도입니다. 앞쪽의 성문과 성곽 안에 여러 집과 길이 있고, 안쪽 산기슭에는 행궁을 나타낸 여러 채의 건물이 보입니다. 실제 건물의 위치·개수·규모를 복원한 지도는 아닙니다.

표 **세 이름, 세 역할**

이름	먼저 연결할 역할
규장각	정책 연구·인재 양성
장용영	왕의 친위 부대·군사적 기반
수원 화성	정치·군사·경제 기능을 갖춘 개혁의 거점

설명

정조는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려는 뜻과 함께, 정치·군사·경제적 기능을 갖춘 새 거점을 마련하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화성에는 행궁이 마련되었고, 군사 훈련과 상업·농업 진흥도 추진되었습니다. 왕을 지지할 군사력은 장용영과 연결됩니다. 여러 정책의 공통 목적을 찾는 문제에서는 왕권 강화와 개혁 추진을, 개별 이름을 묻는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답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수원 화성은 왕이 잠깐 머무는 건물 하나다	**정치·군사·경제 기능을 갖춘 개혁의 거점이다**

시험 포인트

‘책·정책—규장각 / 친위군—장용영 / 수원·도시—화성’으로 구별합니다. 장용영을 5군영의 하나로 넣지 않습니다.

Q19 영조와 정조는 둘 다 탕평을 했는데, 정책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한 줄 답

공통 목적을 먼저 묶고, 각 왕의 대표 정책과 법전 이름을 따로 연결합니다.

낯선 말

시전 상인	도성의 허가된 상점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
특권	특정 집단에 특별히 인정된 권리.
문물제도	사회를 운영하는 여러 제도와 문화적 체계.

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기

비교	영조	정조
공통 방향	탕평을 통해 붕당 대립 완화, 왕권 강화	탕평을 통해 붕당 대립 완화, 왕권 강화
정치 기반	탕평비 건립, 서원 정리, 이조 전랑 권한 약화	규장각, 장용영, 수원 화성
민생·경제	균역법, 신문고 부활, 청계천 정비	시전 상인의 특권 축소, 노비의 처지 개선 노력
대표 법전	『속대전』	『대전통편』
함께 볼 편찬물	—	재정 운영을 정리한 『탁지지』

설명

정조는 시전 상인의 특권을 줄여 다른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려 했습니다. 또 노비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조·정조 모두 제도를 정비했으므로 ‘법전을 편찬했다’는 단서만으로 왕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속대전』인지 『대전통편』인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붕당 갈등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은 두 왕의 공통 방향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정조의 개혁으로 상업 규제와 신분제가 모두 폐지되었다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고 노비의 처지를 개선하려 했다**

시험 포인트

먼저 자료가 '공통점'을 묻는지 '어느 왕인지'를 묻는지 확인합니다. 정조는 영조의 손자라는 관계도 함께 잡습니다.

5 탕평 정치 뒤에는 왜 세도 정치가 나타났을까?

Q20 영조·정조가 탕평을 잘했다면, 왜 정조가 죽자 정치가 달라졌나요?

한 줄 답

붕당 갈등을 왕의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강한 왕이 사라진 뒤에도 안정이 이어질 기반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말

정치 기반	권력을 행사하고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사람·조직·제도.
외척	왕비의 친정 등 왕실과 혼인으로 연결된 친족.
권력 집중	중요한 정치 결정의 힘이 일부 사람에게 몰리는 현상.

표 변화의 배경을 순서대로 읽기

탕평 정치의 성과	남은 한계	정조 사후
붕당 대립을 억제하고 여러 개혁 추진	국왕과 왕이 신임한 소수에게 권력 집중, 붕당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어린 순조 즉위,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의 영향력 확대

설명

탕평 정치는 붕당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개혁을 추진하는 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왕의 힘과 판단에 의존하는 면도 컸습니다. 왕과 왕이 믿는 소수의 인물에게 권력이 모인 구조에서는 왕이 바뀌면 정치의 중심도 크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뒤 어린 순조가 왕이 되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몇몇 가문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탕평의 한계와 정조 사후의 상황 변화가 세도 정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는 같은 뜻이다	**탕평의 한계와 정조 사후의 변화가 세도 정치의 배경이 되었다**

시험 포인트

‘정조 사망 → 어린 순조 즉위 → 외척 가문의 권력 장악’을 사건 순서로 기억합니다.

Q21 세도 정치는 붕당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한 줄 답

몇몇 왕실 외척 가문이 주요 관직과 권력을 차지하여 정치를 이끌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낯선 말

세도 정치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
정권	나라의 정치를 이끄는 권력.
독점	다른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게 혼자 또는 일부가 차지하는 일.

표 시기와 주도 세력

물음	답
언제?	순조·헌종·철종 3대, 약 60년
누가?	안동 김씨·풍양 조씨 등 왕실 외척 가문
어디를 차지했나?	비변사, 주요 관직, 군영의 지휘권 등
왕권은?	약화됨

설명

붕당은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사림의 집단이었습니다. 세도 정치는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몇몇 가문이 주요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는 붕당이라는 정치 집단, 다른 하나는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을 묻는 것입니다.

세도 가문은 중요한 관직과 군사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시기에 따라 영향력이 큰 가문이 달라졌습니다.

헷갈리는 내용 한눈에 보기

× 이렇게 읽으면 틀림	○ 바른 이해
세도 정치는 왕이 직접 정치를 주도해 왕권이 강해진 시기다	**몇몇 외척 가문이 주요 관직과 권력을 차지했고 왕권은 약해졌다**
안동 김씨 한 가문이 60년 내내 같은 힘을 가졌다	**시기에 따라 영향력이 큰 가문이 달라졌다**

시험 포인트

‘순조·헌종·철종 / 왕실 혼인 / 일부 가문 / 왕권 약화’가 함께 나오면 세도 정치입니다.

Q22 관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일이 왜 백성의 부담을 키웠나요? 암행어사는 막지 못했나요?

한 줄 답

돈으로 관직을 얻은 관리가 비용과 이익을 백성에게서 거두려 했고, 암행어사 파견만으로 권력 구조의 문제를 충분히 고치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말

관직 매매·매관매직	돈이나 재물을 주고받으며 관직을 사고파는 일.
수탈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이나 노동을 빼앗는 일.
과거 문란	관리를 뽑는 과거 시험에 부정과 비리가 생겨 공정한 선발이 어려워진 상황.
암행어사	신분을 감추고 지방 관리의 비리와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여 왕에게 보고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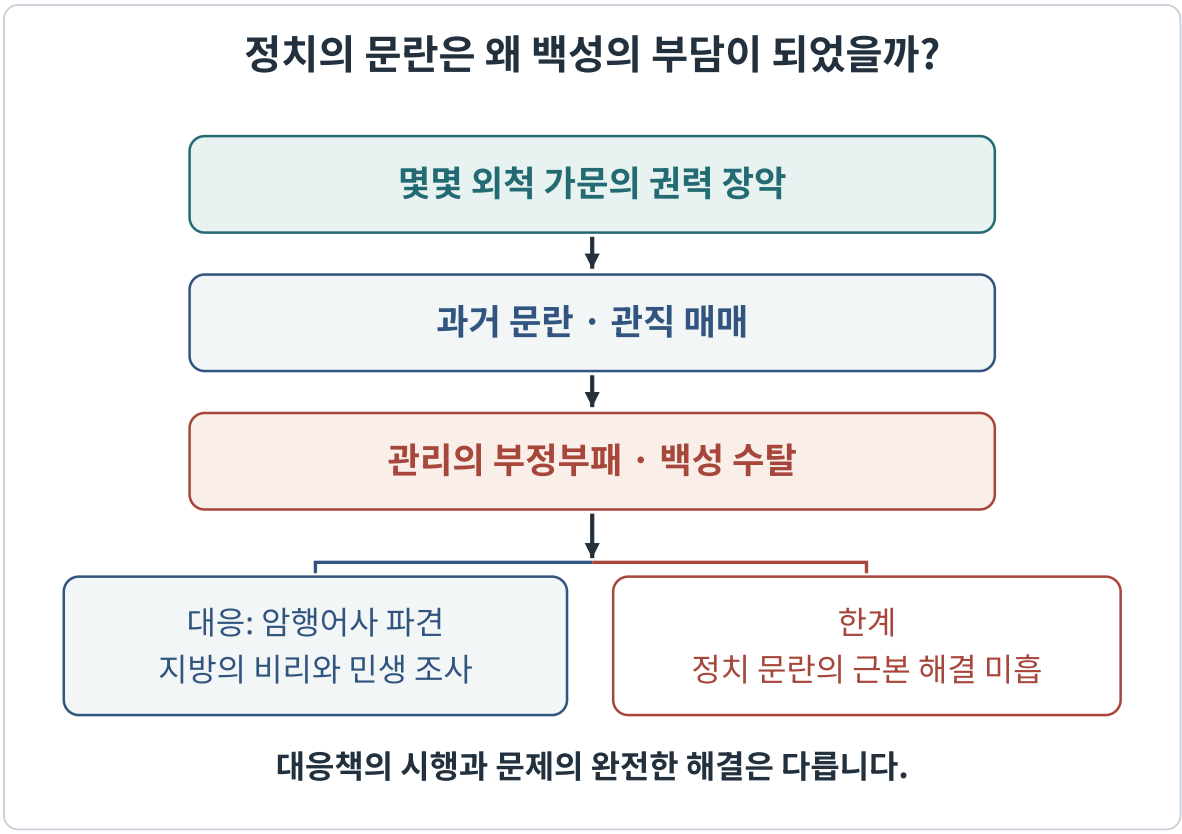


그림 16 **세도 정치의 폐단과 대응**

관직 매매는 관리들 사이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래쪽의 암행어사 파견은 대응책이며, 위쪽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표 **원인·폐단·대응을 구별하기**

구분	내용
정치 구조	세도 가문이 주요 관직과 권력 장악
폐단	과거 문란, 관직 매매, 관리의 부정부패와 백성 수탈
대응	암행어사를 보내 지방의 사정을 조사
한계	정치의 문란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데 한계

설명

관직을 얻는 데 돈을 쓴 사람은 그 돈을 되찾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어야 할 관리가 오히려 부당한 부담을 요구하면 백성의 생활은 어려워집니다. 관직 매매와 백성 수탈이 이어지는 까닭입니다.

정부는 암행어사를 보내 지방 관리의 잘못을 조사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려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관리 선발과 운영 자체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일부 관리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문란은 뒤에서 배울 삼정의 문란과 백성들의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권력 독점—관직 매매·부패—수탈—대응의 한계**를 연결합니다.

시험 포인트

‘암행어사를 파견했다’는 정책 시행의 사실과 ‘수탈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결과를 구별합니다.

★ 정치 운영 네 단계

표 정치 운영의 변화 비교

비교 기준	붕당 정치(공존)	붕당 대립 격화	탕평 정치	세도 정치
시기	선조 때 시작 / 인조반정 뒤 공존	현종~숙종	영조·정조	순조·헌종·철종
정치를 이끈 쪽	서인 주도·남인 참여 등 여러 붕당	그때그때 집권한 붕당	왕	몇몇 외척 가문
핵심 장면	상대 인정, 비판과 견제	예송·환국, 상대 붕당에 대한 보복	여러 붕당에서 인재 등용	관직 독점, 관직 매매
왕권	—	숙종이 환국을 주도	강화	약화

CHECK 확인 문제

아래 자료·상황·선지는 학습을 위해 새로 구성했습니다. 인용 표시가 없는 문장은 실제 사료의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지시가 없는 선택형 문제는 정답이 하나입니다.

확인 01 담당 업무가 달라진 기구

어떤 기구의 역할을 두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처음	양난을 거친 뒤
국경과 해안의 방어 문제를 논의	군사·외교·재정·관리 임명 등 국정 전반을 논의

이 기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규장각이 군사 지휘 기관으로 바뀐 모습이다.
②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된 모습이다.
③ 의정부와 6조가 전쟁 중 새로 설치된 모습이다.
④ 속오군이 중앙의 최고 정치 기구가 된 모습이다.
⑤ 비변사가 전쟁 뒤 국방만 담당하게 된 모습이다.

확인 02 화살표의 방향 고치기

다음 정리에서 역사적 흐름에 맞게 고친 것은?

> 비변사에 중요한 결정이 집중됨 → ㉠ 의정부·6조의 기능이 강해짐 → ㉡ 왕권이 강화됨

① ㉠만 '의정부·6조가 곧바로 폐지됨'으로 고친다.
② ㉡만 '왕이 관리 임명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 고친다.
③ ㉠과 ㉡을 그대로 둔다.
④ ㉠은 '의정부·6조의 기능 축소', ㉡은 '왕권 약화'로 고친다.
⑤ ㉠은 '속오군 설치', ㉡은 '붕당 소멸'로 고친다.

확인 03 병사의 생활과 무기

다음 두 기록에 모두 해당하는 군영은?

> 기록 A: 전쟁 중 새로 설치된 중앙 군영에서 병사들이 급료를 받으며 군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맡는다.
> 기록 B: 조총을 쓰는 병사, 활을 쓰는 병사, 창과 칼을 쓰는 병사를 함께 편성한다.

① 훈련도감 ② 장용영 ③ 속오군 ④ 규장각 ⑤ 비변사

확인 04 중앙군과 지방군

(가), (나)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카드	설명
(가)	훈련도감 등 다섯 군영이 한성과 외곽을 방어
(나)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성하여 평소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 전투 참여

① (가)—속오군 / (나)—5군영
② (가)—5군영 / (나)—장용영
③ (가)—훈련도감 / (나)—규장각
④ (가)—장용영 / (나)—속오군
⑤ (가)—5군영 / (나)—속오군

확인 05 영정법 자료 읽기

전세를 정리한 가상의 장부에 다음 기준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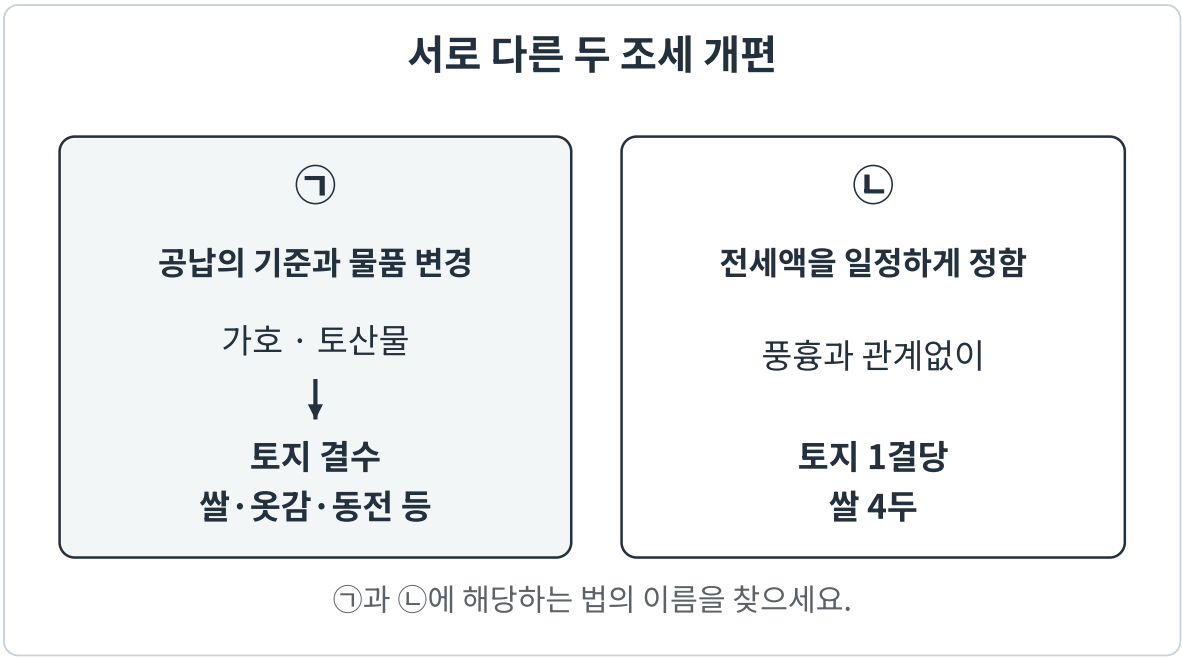
>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 달리하지 않고, 토지 1결당 쌀 4두로 정한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각 집이 토산물을 내던 공납을 군포로 바꾸었다.
② 나라의 모든 세금이 쌀 4두로 통일되었다.
③ 토지의 결수에 따라 전세를 계산하게 하였다.
④ 사람마다 토지 보유와 관계없이 쌀 4두씩 냈다.
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주었다.

확인 06 두 기준 비교하기

다음 그림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영정법 / ㉡—균역법

② ㉠—대동법 / ㉡—영정법

③ ㉠—균역법 / ㉡—대동법

④ ㉠—영정법 / ㉡—대동법

⑤ ㉠—대동법 / ㉡—균역법

확인 07 확대가 오래 걸린 까닭

대동법 시행 지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 늘어났다는 사실을 보고 학생이 이유를 추론하였다. 가장 적절한 추론은?

① 토지 결수에 따라 부담하게 되자 땅이 많은 지주 등의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② 군포를 1필로 줄이면 모든 지주가 군대에 가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③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만 공납을 집중했기 때문일 것이다.

④ 규장각 학자들을 모두 지방군으로 편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⑤ 경기도에서는 시행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만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확인 08 관청 물품은 누가 마련했을까?

대동법 이후의 변화를 나타낸 다음 과정에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 납세자가 쌀·옷감·동전 등으로 납부 → 정부가 필요한 물품의 대가를 지급 → (가)가 시장에서 물품을 마련하여 관청에 공급

① 군역 부담자
② 암행어사
③ 장용영 군인
④ 공인
⑤ 규장각 검서관

확인 09 감면 뒤의 재정

다음 정책과 뒤따른 조치를 함께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정책: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인다.
> 후속 조치: 결작과 어장세·소금세·선박세 등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충한다.

① 인조의 영정법으로 공납을 없앤 것이다.
② 광해군의 대동법으로 모든 군역을 폐지한 것이다.
③ 정조의 탕평책으로 시전 상인의 특권을 강화한 것이다.
④ 숙종의 환국으로 군영을 없앤 것이다.
⑤ 영조의 균역법으로 군포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 부족을 보완한 것이다.

확인 10 붕당 정치의 운영

붕당 정치에서 공존과 견제가 작동하던 모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모든 붕당이 왕실 외척 가문으로만 이루어졌다.
② 자기 붕당 외의 사람은 모두 반역자로 몰아냈다.
③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공론을 모아 정책을 비판했다.
④ 3사와 서원을 없애 모든 의견 제시를 금지했다.
⑤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져 붕당 구별이 사라졌다.

확인 11 계보의 빈칸

다음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붕당은?

> • 동인에서 갈라졌다.
> • 인조반정 뒤 서인이 주도한 정치에 참여했고, 현종 때 예송에서 서인과 대립했다.

① 북인 ② 남인 ③ 노론 ④ 소론 ⑤ 서인

확인 12 예송 자료 해석

다음은 한 논쟁의 쟁점을 학습용으로 다시 쓴 것이다.

> 효종이 죽은 뒤,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한쪽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라는 점을, 다른 쪽은 왕위를 이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이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효종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상복 기간을 정하였다.
② 숙종 때 집권 붕당을 갑자기 교체한 사건이다.
③ 영조가 서원을 정리하기 위해 시작한 논쟁이다.
④ 정조 사후 외척 가문이 장용영의 지휘권을 다툰 사건이다.
⑤ 현종 때 왕실의 예법과 정통성에 관한 입장 차이가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확인 13 두 차례 예송

다음 표의 (가)·(나)에 들어갈 붕당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계기	주장이 받아들여진 붕당
효종의 죽음	(가)
효종비의 죽음	(나)

① (가)—서인 / (나)—남인
② (가)—남인 / (나)—서인
③ (가)—북인 / (나)—남인
④ (가)—노론 / (나)—소론
⑤ (가)—소론 / (나)—북인

확인 14 환국과 그 영향

숙종 때 집권 붕당이 급격히 교체되고 상대 붕당에 대한 보복이 이어졌다. 이 시기의 흐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효종과 효종비가 각각 자의 대비를 위해 상복을 입었다.

② 북인이 갈라져 노론과 소론이 되었다.

③ 붕당들이 공존을 완성하여 정치적 갈등이 사라졌다.

④ 남인 처리 문제를 두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⑤ 순조·헌종·철종의 외척 가문이 처음 사림을 동인·서인으로 나누었다.

확인 15 탕평의 공통 방향

영조·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한 붕당에 치우친 인재 등용을 줄이려 하였다.
- ㄴ. 붕당의 대립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 ㄷ. 모든 붕당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 ㄹ. 왕실 외척 가문이 주요 관직을 독점하도록 보장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확인 16 비석에 담긴 정치의 뜻

다음은 어느 왕이 성균관 앞에 세운 비석의 뜻을 학습용으로 풀어 쓴 것이다.

> 널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편만 챙기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다. 자기편끼리만 뭉치고 널리 어울리지 않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다.

이 비석을 세운 왕의 정책으로만 묶은 것은?

① 장용영 설치—수원 화성 건설—『대전통편』 편찬

② 서원 정리—균역법 실시—『속대전』 편찬

③ 규장각 설치—신문고 부활—장용영 설치

④ 대동법의 경기도 시행—수원 화성 건설—서원 정리

⑤ 균역법 실시—『대전통편』 편찬—규장각 설치

확인 17 기관의 성격 찾기

다음 업무를 맡은 정조 때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왕실 서적을 정리하고 정책을 연구한다. 젊은 관리들을 교육하며, 서얼 출신 학자들도 책을 다루는 관리로 일한다.

① 속오군으로, 지방의 방어를 맡았다.
② 비변사로, 조선 전기부터 왕실 도서만 보관하였다.
③ 장용영으로, 왕을 호위하는 친위 부대였다.
④ 성균관으로, 정조가 처음 세운 최고 교육 기관이었다.
⑤ 규장각으로, 정책 자문과 인재 양성의 역할을 하였다.

확인 18 정조의 개혁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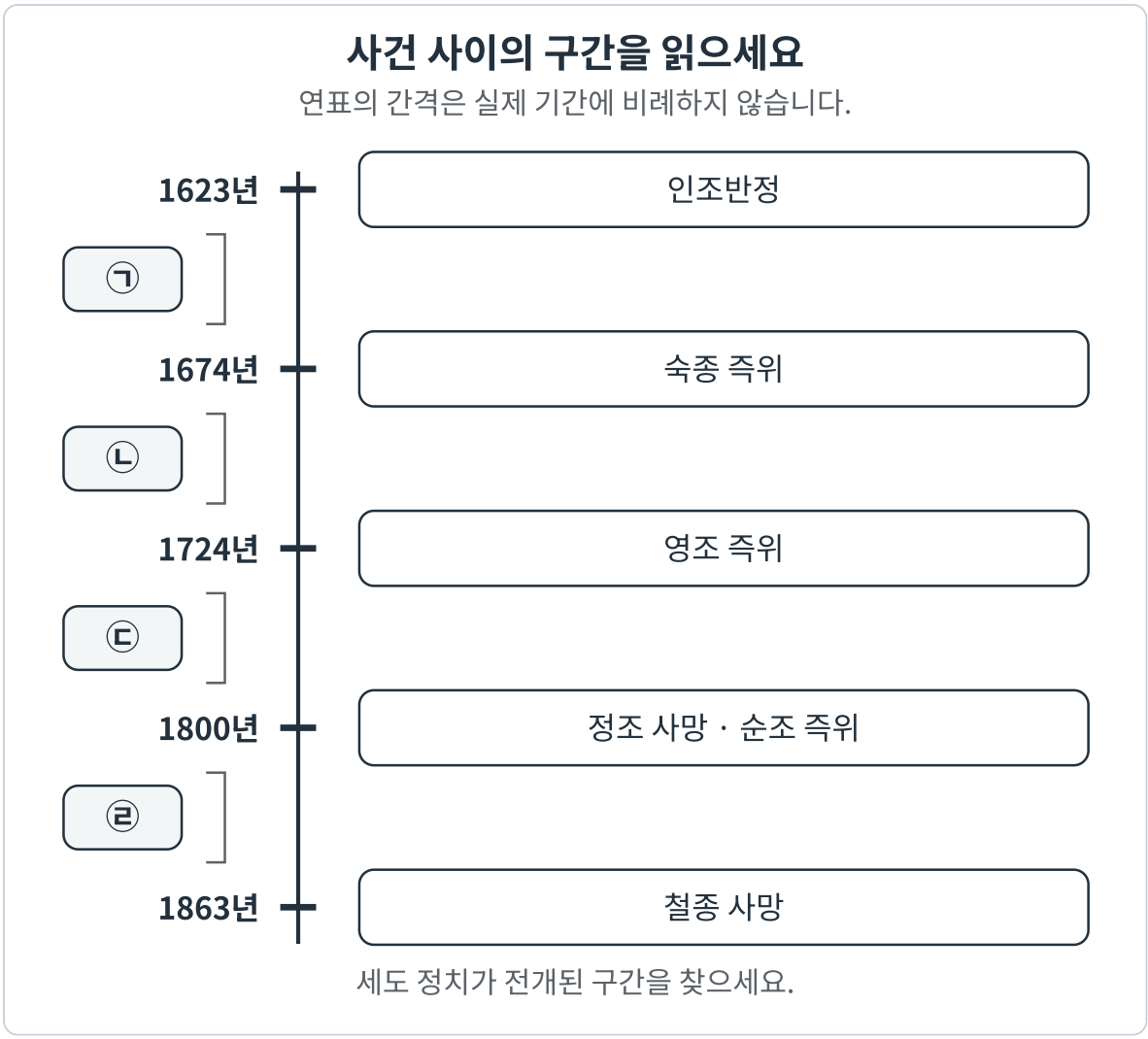
카드 A~C가 설명하는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카드 A	카드 B	카드 C
정책 연구와 인재 양성	왕의 친위 부대	정치·군사·경제 기능을 갖춘 수원의 개혁 거점

① 규장각—장용영—수원 화성
② 장용영—규장각—수원 화성
③ 규장각—속오군—한성부
④ 집현전—장용영—강화도
⑤ 비변사—훈련도감—수원 화성

확인 19 사건 사이의 시기

다음 연표의 ㉠~㉤ 가운데, 일부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구간은?



① ㉠ ② ㉡ ③ ㉢ ④ ㉣ ⑤ ㉠과 ㉡

확인 20 정책의 목적과 실제 결과

세도 정치기에 암행어사를 파견한 사실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① 지방 관리를 감시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보여 준다.

② 과거 시험이 폐지되어 군인을 뽑으러 보냈다는 뜻이다.

③ 지방의 비리와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려 했지만 정치 문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④ 몇몇 가문의 권력 독점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증명한다.

⑤ 암행어사가 지방의 모든 관직을 돈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확인 21 세금 이름 정확히 쓰기

빈칸에 법의 이름을 쓰세요.

(1) 전세를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로 정한 법: (　　)
(2)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옷감·동전 등으로 내게 한 법: (　　)
(3)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인 법: (　　)

확인 22 한 단어씩 고쳐 쓰기

다음 문장은 각각 **굵게 표시한 한 단어**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른 말로 고치세요.

(1) 1차 예송에서 자의 대비의 상복 기간은 **숙종** 때 논쟁이 되었다.
(2) 왕실 도서를 관리하고 정책 연구와 인재 양성에 활용된 정조의 기관은 **장용영**이다.
(3) 순조·헌종·철종 때 왕실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 형태는 **탕평** 정치이다.

확인 23 대동법의 변화 설명하기

대동법 시행으로 공납의 **부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쓰고, 그 변화가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_____

_____

확인 24 관직 매매와 백성의 생활 연결하기

관직을 얻는 데 돈을 쓴 관리가 그 비용을 되찾으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직 매매가 백성의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수탈’과 ‘부담’**을 넣어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_____

_____

ANSWER

정답과 해설

정답 빠르게 확인하기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01	②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②	07	①	08	④
09	⑤	10	③	11	②	12	⑤
13	①	14	④	15	③	16	②
17	⑤	18	①	19	④	20	③

21: (1) 영정법 (2) 대동법 (3) 균역법

22: (1) 현종 (2) 규장각 (3) 세도

23~24: 아래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 확인.

확인 01 ②

판단 근거 국방을 위한 기구가 국정 전반을 다루게 된 것은 비변사의 기능 확대입니다.

① 규장각은 정조의 정책 연구·자문과 인재 양성에 관련됩니다.

② 설치 목적과 후기의 역할 변화를 바르게 읽었습니다.

③ 의정부·6조는 조선 전기부터 있던 기구입니다.

④ 속오군은 지방군입니다.

⑤ 비변사의 담당 범위는 국방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넓어졌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1~Q02.

확인 02 ④

판단 근거 중요한 결정이 비변사에 모이면서 기존 의정부·6조의 기능과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① 기능이 줄어든 것과 기구가 곧바로 폐지된 것은 다릅니다.
② 왕이 인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제시된 두 변화의 방향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④ 두 방향을 정확히 고쳤습니다.
⑤ 속오군 설치는 군사 제도 정비이고, 붕당도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2.

확인 03 ①

판단 근거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과 삼수병은 훈련도감의 특징입니다.

① 두 기록에 모두 해당합니다.
② 장용영은 정조의 친위 부대입니다.
③ 속오군은 지방군이며 평소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④ 규장각은 군영이 아닙니다.
⑤ 비변사는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한 정치 기구이지 삼수병으로 구성된 군영이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3~Q04.

확인 04 ⑤

판단 근거 (가)는 중앙 방어 체제인 5군영, (나)는 지방군인 속오군입니다.

① 중앙과 지방의 조직을 거꾸로 연결했습니다.
② (나)의 생활 방식과 편성 대상은 장용영이 아니라 속오군에 해당합니다.
③ 훈련도감은 다섯 군영 가운데 하나이고, 규장각은 군대가 아닙니다.
④ 장용영은 정조의 친위 부대이며 5군영 전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⑤ 두 조직을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4.

확인 05 ③

판단 근거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는 영정법의 전세 기준입니다.

① 자료는 공납이 아니라 전세입니다.
② 전세의 기준이며 다른 부담까지 합친 총액이 아닙니다.
③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④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⑤ 군포 2필을 1필로 줄인 것은 균역법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5~Q06.

확인 06 ②

판단 근거 ㉠은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공납 기준을 바꾼 대동법, ㉡은 전세를 1결당 4두로 정한 영정법입니다.

① 군포 감면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습니다.
② 고친 세금의 종류와 기준을 모두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③ 균역법은 토산물 공납을 고친 제도가 아닙니다.
④ 두 법을 반대로 연결했습니다.
⑤ ㉡의 4두는 균역법의 군포 1필과 다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5~Q07.

확인 07 ①

판단 근거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부담하게 하면 땅이 많은 지주 등의 부담이 늘어 반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 확대 시행이 오래 걸린 이유를 정확히 추론했습니다.
② 군포를 1필로 줄인 것은 균역법이며 모든 지주의 입대를 뜻하지 않습니다.
③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공납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④ 규장각과 지방군 편성은 대동법의 확대 지연과 관계없습니다.
⑤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7~Q08.

확인 08 ④

판단 근거 정부로부터 물품의 대가를 받아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상인이 공인입니다.

① 군역을 부담하는 사람의 설명이며 물품 공급 상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② 암행어사는 지방의 비리와 백성의 사정을 조사했습니다.
③ 장용영 군인은 왕의 호위 등 군사 임무를 맡았습니다.
④ 공인은 자료에 나온 구매·공급 역할을 맡은 상인입니다.
⑤ 검서관은 규장각에서 서적을 정리·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8.

확인 09 ⑤

판단 근거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왕은 영조이며, 제도는 균역법입니다.

① 영정법은 전세 기준을 바꾼 것이고 공납을 없앤 법이 아닙니다.
② 대동법은 공납의 기준과 납부 물품을 바꾼 법입니다.
③ 정조는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했습니다.
④ 환국은 집권 붕당의 교체이며 군영 폐지가 아닙니다.
⑤ 감면과 부족분 보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9.

확인 10 ③

판단 근거 붕당 정치에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① 붕당을 왕실 외척 가문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상대를 몰아내는 태도는 대립이 격화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③ 공존·공론·비판을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④ 3사와 서원은 공론 형성에 관여했습니다.
⑤ 공존은 의견 차이나 붕당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0.

확인 11 ②

판단 근거 동인에서 갈라졌다는 조건만으로는 남인과 북인을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조반정 뒤 참여와 예송의 대립 상대라는 두 번째 조건으로 남인을 결정합니다.

① 북인은 광해군 때 정치를 주도했으나 인조반정으로 몰락했습니다.
②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③ 노론은 서인에서 갈라졌습니다.
④ 소론도 서인에서 갈라졌습니다.
⑤ 서인은 동인에서 갈라진 붕당이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1~Q12.

확인 12 ⑤

판단 근거 효종이 죽은 뒤 현종 때 일어난 1차 예송입니다. 상복을 입는 사람은 자의 대비입니다.

① 효종의 죽음이 계기이며 효종 자신의 상복 기간이 아닙니다.
② 숙종 때 집권 붕당의 교체는 환국입니다.
③ 영조의 서원 정리는 뒤의 탕평 정책입니다.
④ 정조 사후 외척의 권력 장악은 세도 정치의 배경입니다.
⑤ 예법의 차이가 왕실의 정통성과 정치적 대립에 연결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2.

확인 13 ①

판단 근거 효종이 죽은 뒤의 1차 예송에서는 서인, 효종비가 죽은 뒤의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① 계기와 결과를 바르게 짝지었습니다.
② 결과를 거꾸로 연결했습니다.
③ 북인은 두 차례 예송의 주요 대립 당사자가 아닙니다.
④·⑤ 두 예송은 노론·소론이 아니라 서인·남인이 대립한 사건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2.

확인 14 ④

판단 근거 숙종 때 환국 과정에서 남인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습니다.

① 상복을 입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뒤바꾼 설명이며 예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② 노론·소론은 북인이 아니라 서인에서 갈라졌습니다.
③ 환국은 보복과 갈등을 심화했습니다.
④ 관련 시기·쟁점·계보를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⑤ 동인·서인의 분화는 선조 때이며 세도 정치보다 훨씬 앞섭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1~Q13.

확인 15 ③

판단 근거 ㄱ·ㄴ은 탕평의 방법과 목적입니다.

ㄱ: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는 인재 등용을 지향했습니다.
ㄴ: 붕당의 대립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ㄷ: 붕당과 그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ㄹ: 외척 가문의 관직 독점은 세도 정치의 특징이며 탕평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4.

확인 16 ②

판단 근거 편을 가르지 않고 널리 어울리라는 내용과 성균관 앞의 비석은 영조의 탕평비를 가리킵니다. 서원 정리·균역법·『속대전』은 모두 영조와 연결됩니다.

① 세 정책 모두 정조와 연결됩니다.
② 모두 영조의 정책입니다.
③ 신문고 부활은 영조, 규장각·장용영 설치는 정조입니다.
④ 경기도의 대동법 시행은 광해군, 수원 화성은 정조, 서원 정리는 영조입니다.
⑤ 균역법은 영조, 나머지 둘은 정조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4~Q19.

확인 17 ⑤

판단 근거 정조 때 왕실 서적을 다루면서 정책 연구·교육·서얼 등용의 기반이 된 곳은 규장각입니다.

① 속오군은 지방군입니다.
② 비변사는 국방에서 국정 전반으로 기능이 확대된 기구입니다.
③ 장용영에 대한 설명 자체는 맞지만 제시된 업무의 기관은 아닙니다.
④ 성균관은 조선 전기부터 있던 최고 교육 기관입니다.
⑤ 기관과 역할을 모두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7.

확인 18 ①

판단 근거 A는 규장각, B는 장용영, C는 수원 화성입니다.

① 세 역할을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② 규장각과 장용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③ 속오군은 왕의 친위 부대가 아니며 한성부는 수원의 도시 거점이 아닙니다.
④ 집현전은 정조가 개혁의 기반으로 삼은 규장각과 다르고, 강화도는 수원이 아닙니다.
⑤ 비변사·훈련도감은 각각 A·B의 정조 정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7~Q18.

확인 19 ④

판단 근거 ㉣은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뒤부터 철종 때까지의 구간입니다. 순조·헌종·철종 때 외척 가문의 권력 장악이 이어졌습니다.

① ㉠은 인조반정 뒤부터 숙종 즉위 전까지로, 예송 등이 포함됩니다.
② ㉡은 숙종 즉위 뒤부터 영조 즉위 전까지로, 환국이 일어난 시기가 포함됩니다.
③ ㉢은 영조 즉위부터 정조 사망 전까지로, 영조·정조의 탕평 정치가 전개된 구간입니다.
④ 세도 정치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⑤ 두 구간 모두 정조 사후가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20~Q21.

확인 20 ③

판단 근거 암행어사의 파견 목적과 정치 문란이 계속된 결과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① 관리의 비리와 백성의 어려움을 살필 필요가 있었기에 파견했습니다.
② 암행어사는 과거 폐지에 따른 군인 모집관이 아닙니다.
③ 조사와 보고라는 목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의 한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④ 파견했다는 사실이 권력 독점의 완전한 해소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⑤ 관직 매매를 허용하기 위한 파견이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22.

확인 21 **(1) 영정법 (2) 대동법 (3) 균역법**

법의 이름을 고르기 전에 전세·공납·군역 가운데 무엇을 바꾼 것인지 분류합니다. '토지'는 영정법과 대동법에 모두 나오므로 토지라는 말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1)은 1결당 4두라는 전세액, (2)는 공납의 기준과 물품, (3)은 군포 2필에서 1필이라는 변화가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세 이름이 모두 맞으면 정답입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5~Q09.

확인 22 **(1) 현종 (2) 규장각 (3) 세도**

(1) 효종이 죽은 뒤 현종 때 예송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은 환국과 연결합니다.
(2) 규장각은 책·정책·인재, 장용영은 친위 부대와 연결합니다.
(3) 순조·헌종·철종과 외척 가문은 세도 정치의 단서입니다. 탕평은 한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려는 정치 원칙입니다.

채점 기준 세 문장의 굵은 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현종·규장각·세도로 고치면 정답입니다. 다른 부분은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12, Q17~Q18, Q21.

확인 23 **모범 답안**

대동법으로 공납의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어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공납 부담이 줄어들었다.

채점 기준 ①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기준이 바뀜 ②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의 공납 부담 감소, 두 요소가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집집마다'는 가호, '토지의 결수에 따라'는 토지 결수를 뜻하는 답으로 인정합니다. 쌀·옷감·동전을 열거하거나 시행 연도를 쓰는 것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모든 세금이 없어졌다'는 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07.

확인 24 **모범 답안**

돈을 주고 관직을 얻은 관리가 비용을 되찾으려고 백성을 수탈하면 백성의 부담이 커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채점 기준 ① 관직을 얻는 데 쓴 비용을 되찾으려 함 ② 백성 수탈로 부담이 커짐, 두 요소와 '수탈·부담'이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모든 관리가 반드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행어사의 명칭이나 한계를 덧붙이는 것은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다시 연결할 내용 Q22.
